

#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 P소년원을 중심으로 -

## The Case Study on the Creation and the Use of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the Correctional Educ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Focus on the Juvenile Correctional School at P City

김 수 경(Soo-Kyoung Kim)\*\*

### < 목 차 >

I. 서론	III.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2.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2.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3. 연구의 내용, 방법 및 제한점	3.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평가 및 논의
II.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과 독서치료	IV. 결론 및 제언
1.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	1. 결론
2.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문제	2. 제언
3.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에서의 독서치료의 유용성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의 일환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프로그램 운영상 드러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독서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사례로는 P소년원의 재원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 적용,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년원에서 효과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단계에서 자발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2) 소년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3) 개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4) 소년원내 독서(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소년원생을 위한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 법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의 소년원과 지역의 도서관간의 협약을 통해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7)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도서관이 원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키워드: 비행 청소년, 청소년 비행, 소년원, 교정교육, 독서치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problems exposed as operating of bibliotherapy program and to find way to vitalize bibliotherapy as a correctional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institutionalized youths of juvenile correctional school at P city which have been chosen as the sample representatives for planning, implementing, accessing and analyzing this program. The analysed results of the program show that points are to be considered: (1)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elf-motivated youths when selecting participants. (2) Setting up as a regular program at juvenile correctional school. (3) To be necessary active participation, individu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in abreast of group program. (4) Creating adequate environment in other to ensure continuous self-healing for bibliotherapy (5) To create of professional bibliotherapy programs specialized for juvenile delinquents (6) Bas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between local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s and local libraries (7) Ultimately, To found a library at juvenile correctional schools.

Keywords: Juvenile Delinquent, Juvenile Delinquency, Correctional Education, Juvenile Correctional School, Bibliotherapy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551-H00004).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ksk1101@hotmail.com)

• 접수일: 2010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0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흔히 청소년들은 폭력, 가출, 범죄, 자살, 10대 임신, 마약, 음란비디오 제작 또는 살인 등 주로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행위로 표출될 때 사회의 관심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문제청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부르면서 이 문제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대안이 제시되지만 정작 그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학교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교거부 및 학교 이탈,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원조교제’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청소년 비행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는 그것이 내면적인 정신장애 문제로 발전하면 우울증, 자살 등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며, 그것이 외면적인 문제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면 폭력, 살인 등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사회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픔, 빈익빈의 경제적 어려움과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이 소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강도, 강간, 절도, 마약복용, 폭력 등 범죄행위 외에도 무단가출, 불량청소년과의 교제, 유해한 장소의 출입, 음주나 흡연, 부탄가스나 본드 흡입, 성비행, 자살 등 제반 일탈행위를 두루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또한 비행 청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러한 범죄행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sup>1)</sup>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교정기관은 시설내 처우기관으로 교도소, 구치소, 소년 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과 사회내 처우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정기관으로서는 소년분류

1) 범법 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며, 우범소년이란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소년”을 말한다.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30.jsp](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30.jsp)> [인용 2010. 2. 16].

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현재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각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민간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은 단일한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대책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올바로 양육하고 선도해야 할 가정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사회구성원 전체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문제인자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화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자율적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 청소년에게 독서치료 기법을 적용하여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기르며 사회적응력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기술을 길러서 결국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독서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 2.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독서치료는 말 그대로 책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발달과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처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책읽기와 관련된 활동을 독서치료라 한다. 독서치료는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절한 책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따라, 그들의 요구도 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와 그들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더 잘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호기심을 반영하는 데서 출발한다. M. A. Jalonga는 “독서치료는 정신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 문학 작품을 사용하거나 치유적 통찰(therapeutic sense)을 위해 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2)</sup>

그동안 청소년 관련 독서치료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독서치료가 여러 범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에서는 독서치료 연구의 역사가 깊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독서치료 연구가 일찍 발달하게 된 것은 종교와 전쟁, 즉 세계 제 1차 대전 후의 육군병원의 발달, 적십자나 구세군의 국제적 조직에 의한 추진과 제2차 대전 후의 독서치료의 기초 확립, 그리고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천 활동이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교정활동으로 독서치료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미국의 Sing

2) Linda B. Hendrickson, "The 'Right' Book for the Child in Distress," *School Library Journal*, Vol.34, Issue.8 (April 1988), p.40.

Sing 감옥에서는 도서관을 설립하여 교회사(敎晦師 : Prison Chaplain)가 감독을 하며 죄수들에게 도서를 읽혀 선도하였다.<sup>3)</sup> 또한 1952년 Craig는 비행 청소년의 가정에서 독서치료적 내용이 담긴 도서를 이용하면 독서를 통하여 적개심이 완화된다<sup>4)</sup>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1955년 Floch는 Detroit 소년원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수용자들은 자기 자신과 그들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5)</sup>고 지적하였다. 1965년 Stout는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독서능력을 비교하였는데 비행 청소년의 독서능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독서력 증대와 비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고하였다.<sup>6)</sup> 1968년 Zaccaria는 비행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독서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독서치료는 비행 청소년의 사회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7)</sup>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한 독서치료는 학교와 교정시설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sup>8)</sup>

일본에서는 독서치료의 실험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행하는 것으로 독서에 의하여 성격이나 생활태도를 치료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례연구는 자살, 불안감, 성격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 있다. 다른 하나는 비행 청소년의 교정 현장에서 독서치료의 적용사례이다. 여기에는 가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大神貞男에 의해 보고된 일련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치료사례가 있다. 그는 1964년에 범죄소년을 독서치료로 치료한 사례를 발표한 후 상습공갈, 가출, 강도, 강간, 폭력 등을 행한 청소년에 적용한 독서치료 사례를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는 10여년의 현장 체험을 기초로 독서치료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사례를 수록한 책<sup>9)</sup>을 간행하였다.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는 1950년대에 시작되어 학교와 비행 청소년의 교정시설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적용하고 있다.<sup>10)</sup>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관련 독서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발달적 과제와 청소년의 정서적 자원의 향상에 미친 효과에 관한 실험 또는 사례 연구가 있다. 둘째, 특정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적용한 연구가 있다. 셋째,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 및 자료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중 비행 청소년 관련 독서치료 연구로는 손정표(1978)<sup>11)</sup>, 박용두

3) Price Chennault, "Correctional Institutions Helping the Functionally Illiterate," *ALA Bulletin*, Vol.58(September 1940), p.684.

4) Leila P. Craig, "Boys and Books Get Together," *The Child*, Vol.16(March 1952), pp.98-109.

5) Maurice Floch and G. Casey, "The Library Goes to Prison," *ALA Bulletin*, Vol.149(March 1955), pp.126-128.

6) Juanita Kidd Stout, "Troubled Child and Reading Achievement," *Catholic Library World*, Vol.36(May-June 1965), pp.603-608.

7) Joseph S. Zaccaria and Harold A. Mosses, *Facilitating Human Development Through Reading*(Champaign : Stipes, 1968), p.39.

8) 변우열, "비행 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7), pp.143-144에서 재인용.

9) 大神貞男, 讀書療法 : その基礎と 實際(東京 : 文教書院, 1973).

10) 변우열, 전계논문, p.145.

(1981)<sup>12)</sup>, 금용태(1986)<sup>13)</sup>, 김병수(1988)<sup>14)</sup>, 윤달원<sup>15)</sup>, 변우열(1997)<sup>16)</sup>, 민영숙(1999)<sup>17)</sup>의 연구 등이 있다. 문제청소년에게 독서치료를 직접 적용한 사례 연구로는 박용두, 금용태, 윤달원의 연구가 있다.

박용두(1981)는 고등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유형을 ① 음주, 가출 ② 폭력, 반항 ③ 부정행위, 사행행위, 도박 ④ 이성교제, 성비행 ⑤ 기타로 나누어 진단을 통하여 원인 규명을 한 후 선정된 적서목록을 제공하여 독서요법을 실시하였다.

금용태(1986)의 연구에서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 폭행, 성비행, 우울반응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 학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는 치료적 독서지도의 방법을 구안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치료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적서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치료지도를 실시한 후 이를 독서흥미, 학습행동, 사회적 행동, 가정의 심리적 환경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치료 전과 후의 변화과정을 여러 방법(설문, 관찰, 실험, 수업분석, 표준화 검사 등)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 학생들은 독서흥미가 높아지고, 수업태도도 향상되었으며 행동발달에서도 정서가 안정되고 존대법이 향상되었다. 사회부적응행동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적응행동은 크게 늘어났다.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관계도 개선을 가져왔고 긍정적 자아가 형성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독서요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윤달원(1990)은 G지역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독서능력이 있는 40명을 선정하여 통제집단 20명, 실험집단 20명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하였다. 독서요법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게 독서요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1차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독서요법 처치 후 2차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각각 실시하여 두 집단의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비행 청소년의 자아개념 육성에 독서요법 효과의 가능성을 밝혔다.

### 3. 연구의 내용,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 11) 손정표, “비행 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개발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 도서관, 통권 224(1978. 10).
  - 12) 박용두, “독서요법에 의한 생활지도: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수도교육, 제62집(1981. 12).
  - 13) 금용태, 청소년 비행 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14) 김병수,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긍정적 자아개념 육성방안: 독서요법을 통한 집단지도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교육논문집 10(1988. 11).
  - 15) 윤달원, 비행 청소년 자아개념 육성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16) 변우열, “비행 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7).
  - 17) 민영숙, “청소년의 비행과 독서요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출판문화연구소논문집, 제1집(1999).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2호)

- 1) 비행 청소년에게 교정활동으로서 독서치료 기법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 2)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비행에 의해 소년원 처우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때 P소년원을 중심으로 교정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 가능성을 타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상황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매체와 치료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적용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다음 프로그램 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3) 소년원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점을 발굴하고 향후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독서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도서관에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으로서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시사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연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1)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연구 및 실천 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문헌 연구를 한다.
- 2) P소년원의 운영 실태와 교정교육 활동 현황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 3) 사례연구를 통해 P소년원에 적용할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평가를 실시한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심층면담과 문화기술지법을 사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이 연구는 한 소년원에서 제한된 참여자에게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파일럿(pilot) 연구의 성격으로서, 독서치료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한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특정 분야의 연구자 개인으로서 접근하기에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 3)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기된 논의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비행 청소년과 관련된 학문분야나 관련기관과 연계, 협력하여서 향후 비행 청소년을 위한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 II.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과 독서치료

### 1.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교정이란 일탈과 단절 등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을 통칭한다. 따라서 수용소년을 교정하기 위해 교육한다는 것은 수용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다시 범하지 않는 행동 경향 또는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sup>19)</sup> 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소년법 시행에 따라 소년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우범소년)의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 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비행을 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을 위한 처우를 행하는 넓은 의미의 재교육기관이다. 소년원에의 수용은 교정교육의 한 수단이기도 하며, 비행 소년의 건전한 육성 즉 비행소년의 개선, 갱생, 사회복귀와 아울러 일반시민을 범죄, 비행의 위협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대상자가 보호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재적응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비행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요인을 없애고, 각 보호청소년의 장점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sup>20)</sup>

현행 소년법의 ‘교정교육’의 개념을 원생들에 대한 ‘처우’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년원 처우의 기본원칙은 ‘보호소년 혹은 위탁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그들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sup>21)</sup>에 있다. 그리고 교정교육은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sup>22)</sup>

비행 청소년문제의 배경과 그 특성 및 실태 조사를 통한 비행 청소년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18) 김상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 연구와 비행 예방책으로서 종교교육 : 소년원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2), p.6.

19) 개정 소년원법 제2조.

20) 김상윤, 전제논문, p.7.

21) 소년원법 제5조.

22) 소년원법 제28조.

대책을 제시한 윤주영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 교정교화제도의 운영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완전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모든 청소년교정기관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셋째, 교정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성격과 상황, 비행동기에 따라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정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비행 청소년의 교화과정에서 일반사회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야간수용제, 휴일수용제, 가족과의 만나는 날(외출 및 외박)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섯째, 가족이 없거나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 시 쉼터역할과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일곱째, 청소년 교정기관의 직원 수를 늘려야 한다. 여덟째, 비행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범죄예방위원의 전문화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인원 충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교정 교화는 가정과 함께 다양한 차원의 부모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sup>23)</sup> 이처럼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은 시설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정, 사회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교육의 필요성, 퇴소후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 비행 청소년들이 놓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개별 혹은 사회적인 사후 처치 및 대책 또한 필요하다.

## 2.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측면으로 볼 때 제2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격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Hall은 이 시기를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고독, 혼돈의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되어 긴장과 혼란을 겪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묘사했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을 형성, 발전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부모와 다른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고 개별화하는 동시에 동성이나 이성 친구 등 또래 집단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제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적응력도 낮음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종래에는 가정 형편이나 성적부진이 주를 이루었으나

23) 윤주영, “비행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제5호(2006), p.145.

24) 상계논문, p.114.



최근 들어 학교의 규율에 대한 저항, 폭력, 약물중독, 왕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청소년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sup>25)</sup>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질과 나이에 의해 형사처분 혹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중 일부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된다.

부적응 학생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심리적 요인으로 성격발달의 문제, 사회발달상의 문제, 심리적 불만과 갈등의 문제(애정결핍, 욕구 좌절)가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정환경(결손가정, 빈곤가정), 양육환경(과잉, 부모의 비행, 가정불화), 양육태도(방임, 편애 등), 학교(학업부진,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 등), 사회(유해환경, 도시화) 등이 있다.<sup>26)</sup> 비행 청소년은 곧 부적응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 가정, 사회의 어느 한 곳 혹은 모든 곳에서 부적응 경험을 가졌던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은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 기관이다. 이들이 학교에 다닐 나이이며, 학교를 중도 탈락했거나 휴학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학업을 이어줄 목적으로 기존에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과교육 중심의 획일적인 과정으로 운영됨으로써 애초 소년원 교육의 목표이던 심성개발, 특기 및 적성 개발, 지적발달 등의 교정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1998년부터 특성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성화교육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용외국어·컴퓨터 및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개편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안정된 사회정착 및 재비행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특성화 학교로서 소년원 교육과정은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성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보다는 컴퓨터 등 기능교육과 자격증 취득 위주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성훈련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 학교 체제가 퇴원생의 재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실정이다.<sup>28)</sup>

비행 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정교육 기관으로서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소년원 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오원선의 연구에서는 소년원학교의 개선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소년원 학교의 교과내용의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인성중심의 교과내용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특별활동을 다양화하며 체계적인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원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학생들 상담과 지도를 담당할 전문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원 학교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5) 오원선,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矯正研究, 제37호(2007), p.109.

26) 상계논문, p.110.

27) 법무부 보호소년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40/jsc\\_404020.jsp](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40/jsc_404020.jsp)> [인용 2010. 2. 16].

28) 오원선, 전계논문, p.116.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계획, 실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sup>29)</sup> 이처럼 소년원 교육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1998년 이후에는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의 공교육체계를 따라 교육하던 획일화된 학습 중심의 교육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애초 목표했던 심성훈련을 통한 재범 예방에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에서의 독서치료의 유용성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서치료가 비행 청소년들의 부적응문제와 인성과 생활지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특히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일본의 비행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전문가인 大神貞男은 독서치료의 특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30)</sup>

첫째, 독서치료의 이론이나 방법의 습득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문 감옥심리학자는 물론 학교 카운슬러, 교사, 도서관 사서, 가정재판소 조사관, 감별소 교관, 아동상담소나 소년원, 교도소 직원 등에게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일 뿐 아니라 전통적인 심리치료에 비하여 치료기간도 짧고 효과도 높다.

둘째,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또한 특수한 대상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했지만 독서치료는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이면 충분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효과는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효과를 한눈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또한 전문가는 각종 심리검사를 이용하여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넷째,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는 일반적으로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치료기간도 길며, 저항감도 강하게 동반하며 치료과정도 고통스럽지만, 독서치료는 좋은 독서자료를 읽는 것이 곧 치료이므로 저항감도 없고, 대상자 자신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분도 들지 않은 채 독서를 계속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진행되는 소위 자기치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독서치료는 심리치료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지도 기술로서 비행의 예방대책, 정서교육, 학업곤란 등의 문제아 지도나 성교육 등에도 효과적이며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교정기관에서 독서를 비롯한 도서관의 교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홍명자(2003)<sup>31)</sup>의

29) 상계논문, pp.130-131.

30) 변우열, 전계논문, pp.140-141.

31) 홍명자,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12), pp.41-63.

연구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교화교육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영국도서관협회 교도소도서관지침을 인용하였다. 영국의 교도소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문맹퇴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특히 독서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범죄방지에 훨씬 효과적이었고, 또한 재범률 또한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이 수형자에게는 물론이고 교도소 운영자 및 직원에게도 도움이 된다<sup>32)</sup>고 하였다. 또한 Monroe County Correctional Center와 Monroe County Public Library가 공동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에서도 수형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나태하거나 권태로움을 탈출할 수 있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아성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sup>33)</sup>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문맹율이나 학습장애율이 높으며, 학교에서 중도 탈락율도 평균보다 높다. 또한 불충분한 직업 훈련, 높은 비율의 정신질환과 정서적 불안정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sup>34)</sup>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내지 독서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서흥미와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오락용 독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를 대비하여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줄 정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sup>35)</sup> 또한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 일정기간 수감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요구를 지닐 수가 있다.<sup>36)</sup>

무엇보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독서관련 서비스는 그들의 갇힌 마음과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로서, 처음으로 책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서비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 오레곤주의 한 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청소년 사서가 청소년 교정기관에서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생애 처음으로 책을 읽게 된 한 소년의 다음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책읽기가 그렇게 재미있는 줄 미처 몰랐다. 내가 밖에 있을 때는, 난 결코 책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게 보여주어서, 단지 당신 때문만은 아니지만, 나는 매일 책을 읽고 있다. 이제 나는 정말 책읽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것들은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이다.”<sup>37)</sup> 또 다른 예는,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서 풀려난 한 사람의 사례가 있다. 그는 “나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책읽기를 통해서 나는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갔다.” 이 사람은 두 명의 살인자로 유죄판결 받았을 때, ‘미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아이’로 묘사되었다. 한편 그는 스스로 수학, 공학과 전자학을 배웠고 혼자 힘으로 자유를 얻어 한 전기회사의 수학자로 경력을

32) 상계논문, p.57.

33) 상계논문, p.58.

34) 상계논문.

35) Sandra Souza, “Real Libraries, Real Librarians,” *Wilson Library Bulletin*(October 1997), pp.37-38.

36) 홍명자, 전계논문, p.211에서 재인용.

37) Patrick Jones, “Motive and Opportunity: Serving Teens in the Correctional System,” *CSLA*, J.27, No.1 (Fall 2003), p.26.

가졌다.<sup>38)</sup>

Zaccaria(1968)은 최근에 비행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있어서 치료기법(therapy)은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중 독서치료는 사회복귀의 한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sup>39)</sup> 이처럼 수용자들의 독서 경험에 의해 자신의 독서태도, 자기 통찰, 극적인 삶의 전환으로 이어진 긍정적인 성공 사례는 특히 미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교정시설과 도서관 및 연계 기관과의 협력 하여 이루어낸 성과 중의 하나이다. 독서치료 사서 혹은 청소년 사서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정 시설에서 독서치료 혹은 이와 유사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독서능력의 향상, 이들을 위한 목록의 생산, 독서토론모임, 교정시설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등으로 성과가 드러났다.<sup>40)</sup>

교정시설은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외부 환경의 자극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분히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독서치료는 지금까지 외부적 환경과 자극에 반응하며 살던 청소년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자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많은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비행으로 외현화한 결과 사회기관의 보호와 감호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비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관리능력 또한 필요하다. 독서치료를 비롯 정신치료에서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인 채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상당수 있다. 어른이 되었다고 모두 이런 정서 관리 능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을 독서치료가 도와줄 수 있다. 행동을 일으키는 저변에는 사고(thinking)가, 사고 이전에는 정서(emotion)가, 정서 이전에는 무의식(unconsciousness)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어 정서 생활을 주관한다. 독서치료는 치유적인 메시지가 담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게 된다. 이는 문제행동을 바로 잡는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서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그에 수반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여러 가지 정보습득은 물론 책속의 인물과 동일시를 통해 모방 행동을 유발하고, 인물의 행위를 따라가며 카타르시스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도 기를 수 있다.

만약 집단적으로 독서치료가 행해진다면 사회관계 기술 훈련과 지지집단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 또한 독서치료는 자신의 문제가 정확한 언어로 명료화되기 때문에 치유의 효과가 또한 깊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도자에 의해 집단적으로 읽으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이런 훈련받은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지지 집단 속에서 책을 읽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문제행동을

38) Eleanor Frances Brown, "Prisons and Other Correctional Institutions," *Bibliotherapy and Its Widening Applications*(Metuchen, N.J. : The Scarecrow Press, Inc., 1975), pp.168-169.

39) *Ibid.*, p.163.

40) *Ibid.*, pp.151-179.

일으켰던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이를 해결할 실마리 혹은 문제해결책까지도 책 속에서 혹은 책을 읽은 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자기에게 적합한 상황의 책을 선정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평생 혼자서도 책이 '침묵의 치료사(therapist of silence)'가 되어 도와준다. 이것이 독서치료가 가지는 치료의 효과이다. 이런 독서치료의 치료 효과를 통해 자신에게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어 돌보아 준다면 재범을 막는 것은 물론, 범죄와 정신장애의 싹을 가졌던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예방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정활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과 꼭 마찬가지로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사회가 있다.' 청소년 비행의 결과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청소년을 좀더 다면적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 돌볼 수 있는 교정교육이 되어야 한다.

### Ⅲ.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로서 P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해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1.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 가. P소년원의 특성

소년원(학교)은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인성교육·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sup>41)</sup>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비단, 기본교육의 제공이나 직업기술의 향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원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나타나 있듯이 심성순화와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의 창출 역시 중요한 교육항목으로 상징되고 있다.<sup>42)</sup>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원자 교육(10일), 기본교육(5~18개월) 및 사회복귀훈련(10일)으

41)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30.jsp](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30.jsp)> [인용 2010. 2. 16].

42) 김상훈, 전계논문, p.20.

로 구분된다. 입원자 교육은 생활안내와 처우심사를 통한 교육기관 및 교육지정 등을 하는 과정이며, 기본교육과정은 5-18개월에 걸쳐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특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교육은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퇴원전 10일 동안 진로상담, 사회적응지도와 취업알선,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소년원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교육으로는 컴퓨터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 경영정보, 외국어(영어, 일본어) 회화, 체육(복싱, 태권도, 유도, 씨름, 생활체육, 볼링) 등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교과교육에는 일반중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각종 검정고시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으로는 작업요법, 미술요법,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사무자동화, 전산응용건축제도, 피부미용, 카일렉트로닉스, 건축환경설비, 자동화용접, 전기공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등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교육에는 체험학습 과정인 문화공연관람, 국토순례, 보이스카우트훈련, 세계문화체험,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학생 격려,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전국소년보호기관 PC경진대회, IT관련 창업설명회 등이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이 있고, 특별활동으로는 자치회활동, 학예활동, 생활근로활동, 행사, 봉사,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sup>43)</sup>

우리나라에는 2010년 11곳의 소년원학교가 있다.<sup>44)</sup> 이중 연구대상은 P소년원, 즉 정보산업 특성화학교로서 10호 위탁<sup>45)</sup>을 받은 소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카일렉트로닉스·자동화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sup>46)</sup>을 실시하는 곳이다. P소년원에는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가 있는데, 연구대상 소년원생은 특성화교육, 생활지도, 직업교육훈련, 심성훈련을 담당하는 교무과에서 추천한 소년원생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교무과의 특별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성지도의 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어떤 범죄 유형으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초범인지, 재범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될까하여 사전에 알고자 하였으나, 교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상 알려줄 수 없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보다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담당 교무과 직원은 조언을 주었다. 독서치

43)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com/blank.jsp>> [인용 2010. 2. 16].

44) 1개의 일반 인문계학교, 특성화 학교로 정보통신학교 4곳과 정보산업학교 3곳, 의료제학과 인성교육을 위해 각 1개교씩 총 11개의 소년원학교가 있다(법무부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com/blank.jsp>> [인용 2010. 2. 16]).

45) 소년법 개정(2008. 6. 22 시행)에 따라 개정 전에는 1~7호 처분까지 있었으나, 개정이후는 1~10호까지로, 10호 보호처분은 24개월 미만 장기간 동안 수용,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호 보호처분 받은 소년원생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서 형벌형량이 높거나 재범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보호처분은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6)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40/jsc\\_404010.jsp](http://www.jschool.go.kr/HP/TJSC/jsc_40/jsc_4040/jsc_404010.jsp)> [인용 2010. 2. 16].

료의 목적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행동 이면의 내면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돌아보는 데 있으므로 그들의 범죄 형질을 아는 것은 참여자의 특성을 아는데 일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의 내면세계를 아는 데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이다.

#### 나. P소년원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과정 및 개발

##### (1) P소년원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과정

P소년원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1) P소년원 학교장 앞으로 협조공문 제출 -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사전 면담, 프로그램 진행 시간(8주 혹은 12주간) 확보, 프로그램 운영 후 사후 면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 2) 협조 요청이 수락된 이후 담당자와 사전 약속에 따라 P소년원 방문 - 소년원 내 도서실 및 기숙시설, 훈련시설 탐방, 도서실에서 관련 추천도서 선정 및 특별 배치 관리를 협조 받았다.
- 3) 프로그램 대상자 사전 면담 - P소년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들에게 독서상황질문지를 통해 참여자의 독서능력 및 가족관계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분야에 관한 정보 등을 입수하여 프로그램 계획시 참고로 하였다.
- 4) 프로그램 개발 - 이에는 일반적인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독서치료 프로그램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매체선정과 아울러 프로그램 활동을 연계하였다.
- 5)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 프로그램 진행은 12주 동안, 주진행자는 연구자 본인이 하였으며, 보조진행자로서 비행 청소년에 이해를 가진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참가자들에게 자기기술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6)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 인근 공공도서관에 협조 요청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년원의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계를 맺었다.
- 7)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이후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 - 인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였다.

6), 7)번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개인 신분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자는 P소년원 인근에 협력사업 일환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물색하게 되었다. 마침 P소년원 인근에 독서치료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의 S도서관 관장님께 의뢰하게 되었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이에 S도서관에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1회 12주 프로그램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소년원에서 독

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P소년원에 S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S도서관의 조직·인적인 사정과 아울러 P소년원의 환경적 인적 조건이 바뀔에 따라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안되었다고 한다.<sup>47)</sup>

(2) P소년원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비행 청소년은 대체로 다음의 주요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1) 그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일반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2) 그들은 대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인다. 3) 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4) 그들은 비록 그들이 방어기제로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지라도, 대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sup>48)</sup> 독서치료를 포함한 교정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년원생을 위한 집단독서치료를 계획하였으며,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의욕 고취, 정서이해, 대인관계 증진, 자존감 향상 등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계획은 다음과 같다.

ㄱ. 프로그램 목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는 달리 무의식적, 즉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고, 과거의 일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확인하여 이를 표현하고 치유함으로써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여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다.

ㄴ. 수업 방법: 각 시간마다 주어진 책을 읽고 와서 각자가 느낀 소감을 이야기한다. 참여자는 제시된 책 중 주매체를 우선 읽고, 나머지 동화(♥)는 보조적으로 본다. 독서치료는 책이 매개가 되어 내면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책읽기가 무엇보다 좋은 치료자 역할을 한다. 되도록 책읽기를 충실히 한다. 그리고 난후 글쓰기는 간략하게 메모 형식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각자가 읽은 책에 대한 자기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다른 참여자들과 진솔하게 나눌 때 많은 위안과 공감, 통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ㄷ. 세부 계획표

47) S도서관장과 전화 인터뷰(2010. 2. 17), S도서관에서 진행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수경, "문제청소년 교정활동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한국·독일 도서관 컨퍼런스(서울 : 국립청소년도서관, 2008), pp.116-129 참조.

48) Eleanor Frances Brown, *op. cit.*, p.158.



〈표 1〉 P소년원 독서치료 프로그램 세부계획

단계	회기	목 표	상황별 매체	활동 및 방법
준비	1 11/15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	- 독서치료란 - 나를 소개하기 - 나의 인생 여정	- 문장완성검사지 - 인디언식 이름 짓기 - 내인생의 10대사건(마인드맵) - 내가 매기는 나의 점수
성장의 아픔 돌 아보기	2 11/22	어린시절 마음상함	◎ 상황: 어린시절의 마음상함 ◎ 주매체: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 명창순. 울어도 괜찮아. 푸른책들, 2006.	- 책 읽고 나와 유사한 사례 찾기 -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1분 글 쓰기) - 그 때 기분이 어땠는가?(3분 말하기)
	3 11/29	청소년기 마음상함	◎ 상황: 청소년기의 마음상함 ◎ 주매체: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 이훈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야기, 2001. - 비디오시청. 추적 60분. 명문대생 왜 그는 부모를 살해했나 ♥ 박상률. 나는 아름답다. 사계절, 2000.	- 책 읽고 나와 유사한 사례 찾기 - 우리집과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때 나는 어떻게 하였나? - 나무그림, 물고기가족화, 안정으로본 세상, 가족에 대한 상징적 표현 - 말하기, 글쓰기, 그리기
가족 및 친구 관계 돌아보기	4 12/6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 상황: 부모와의 관계 ◎ 주매체: 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완 옮김. 사피엔티아, 2000. - W. 휴 미살다인. 몸에 밴 어린 시절. 이석규 · 이종범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개정판) ♥ 공지희. 영모가 사라졌다. 비룡소, 2003.	- 흔들리는 부모 중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차 례를 보고, 1-6장 중 골라읽기/ 9장 사고방식, 감정, 행동 체크하기/ 부모로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10장 이후 읽고 부모에게 편지쓰기) - <몸에밴어린시절>은1부 읽고, 2부(10-18장)에는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장 골라읽기/ 19장 자신에게 새로운 부모구실하기 읽기
	5 12/13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돌아보기	◎ 상황: 학교, 폭력 ◎ 주매체: 시게마츠 키요시, 오유리 옮김. 소년, 세상을 만나다. 양철북, 2004. ♥ 박기범. 문제아. 창작과비평사, 1999. ♥ 강무홍. 짝짝지. 사계절, 2007. ♥ 안케 드브리스. 두 친구 이야기 ♥ 이중현. 파란리본. 한겨레출판, 2004. ♥ 엘리자베트 켈러. 배수아름김. 폭력은 싫어!. 주니어김영사, 2007.	- 책 속의 나 찾기 - 내가 불안한 이유는? - 불안할 때 나는 어떤 충동을 느꼈는가?
정서 이해와 표현 방법 알기	6 12/20	화, 분노에서 벗어나기	◎ 상황: 화 ◎ 주매체: 브랜다 쇼샤나 저. 김우중 역. 마음의 불을 꺼라. 정신세계사, 2006. ♥ 미셀린느 먼디. 김은정 역.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비룡소, 2003.	- 나는 어떤 때 화가 나는가? - 나는 어떻게 화를 푸는가? - 화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법
	7 12/27	우울, 슬픔 넘어서기	◎ 상황: 상실감, 우울 ◎ 주매체: 존 제임스 외, 장석훈 역.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북하우스, 2005.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로스 외, 김소향 역. 상실수업. 이레, 2007. - 김해남. 왜 나만 우울한 걸까. - 검정개 블랙키의 우울증 탈출기.	- 상실그래프, 관계그래프 그리기 - 내 우울의 원인은? - 분노와 우울과의 관계는?
	8 1/3	청소년기의 성과 사랑	◎ 상황: 성과 사랑 ◎ 주매체: 김해남.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중앙M&B, 2002. - 구성애. 빨간책. 올리브, 2003. - 구성애. 우리가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또한나의문화, 1998. ♥ 티에리 르네, 조현실 옮김. 운하의 소녀. 비룡소, 2002.	- 도대체 내게 사랑은 무엇일까? - 내가 성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 내가 성과 사랑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단계	회기	목 표	상황별 매체	활동 및 방법
상처 넘어서기와 새로운 역할 모델 찾기	9 2008 1/10	치유를 위한 글쓰기	◎ 상황: 소년원, 수감자 생활 ◎ 주매체: 마크 잘즈만, 노진선 옮김, 새장안에서도 새들은 노래한다. 푸른숲, 2006. - 장 프랑수아 새바스, 장혜용 옮김, 감옥에서 쓴 편지, 바람의아이들, 2007. -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푸른숲, 2005.	-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기억, 그 기억 속의 사람에게 편지쓰기 -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영화감상)
	10 1/17	나의꿈, 나의 길	◎ 상황: 가난, 소외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 주매체: 요시이에 히로유키, 남도현 역, 불량소년의 꿈, 양철북, 2004. - 오카 슈즈, 우리 누나. - 유용주, 마린을 찾아서, 한겨레출판, 2001. - 오히라 미쓰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양윤옥 옮김, 북하우스, 2000.	- 나의 자서전 쓰기 - 10년 후 나의 명함 만들기 - 초청강사 초빙
	11 1/24	치유와 성장을 향하여 / 평가	◎ 상황: 삶은 어렵다 ◎ 주매체: 스킷 펙, 아직도 가야할 길, 열음사, 2002. - 이무석, 30년만의 휴식, 비전과리더십, 2006. - 김형경, 사람풍경, 예담, 2006.	- 문장완성검사지 - 내가 매긴 나의 점수 - 자기평가

※ 위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는 동화 또는 그림책으로 보조자료입니다. 되도록 주매체를 읽어주시고, 마음에 가는 보조자료가 있으면 주매체 대신 읽으세요.

## 2.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에는 기본 세 가지 요소, 즉 참여자, 매체, 진행자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참여자 선발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은 P소년원의 교무과에 독서치료 관련 협조공문을 띄워 10명 내외의 소년원생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과제빵반에 있는 10명의 소년원생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다. 선발 규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예비 모임에서 독서상황질문지<sup>49)</sup> 결과, 첫 번째 선발된 참여자들의 인구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14세에서 17세까지의 연령 비율이 전체 비행 소년의 60%가 넘으며, 학력 수준은 중학교 학력이 30%, 고등학교 학력이 50% 이상<sup>50)</sup>이라고 한다. 연구 대상인 P소년원생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0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 연령 범주는 고교 재학 나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나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재범 이상일 소지가 많으며, 대체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9) 부록 참조.

50) 김상훈, 전계논문, pp.21-23.

〈표 2〉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독서능력

이름(가명)	나이	가족관계	독서능력	종교
최수중	18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읽고 싶은 책만	기독교
임희섭	19	조부모, 부모, 동생, 나	다양한 분야의 책 읽고 내용 파악	불교
양동근	17	할머니, 부모, 동생 2, 나	다양한 분야의 책 웬만큼 읽을 수 있음	기독교
임철승	20	부모, 동생, 나	다양한 분야의 책 웬만큼 읽을 수 있음	무교
김하늘	19	부모, 남동생, 나	다양한 분야의 책 웬만큼 읽을 수 있음	기독교
전주영	19	할머니, 아버지, 형, 나	소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불교
한영록	20	어머니, 누나	읽고 싶은 책만	기독교
박찬성	17	아빠, 나	소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이지운	17	부모, 누나, 나	소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강행복	20	부모, 남동생, 나	읽고 싶은 책만	불교

또 가족 관계를 보면, 양친이 있는 정상가족의 출신이 10명 중 5명으로 50%에 해당한다. 이는 양친이 있는 원생이 50.9%라는 법무보호국(1999년)의 통계자료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 보호국(1999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행 원인에서 교우불량과 가정결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sup>51)</sup> 우리가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결손 가정 출신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다소 빗겨난 가족 환경 현황이다. 그들의 비행 원인은 그 또래의 발달과정 상에 중요한 교우 관계와 가족 간의 유대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독서능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그들의 독서능력을 진단하지는 못하고, 다만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기 판단에 맡겼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웬만큼 읽을 수 있거나 소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답한 원생이 각각 4명, 3명으로, 참여자 중 10명 중 대다수가 어느 정도 독서력이 뒷받침되고 파악되었다.

이 중 양동근, 임철승, 강행복은 3회차부터 여러 가지 그만두게 되었고, 대신 김우진, 박용하, 김진영이 새롭게 영입되었다. 이들에게는 독서진단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나. 프로그램 시기 및 장소

프로그램은 예비모임 1회를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은 11회(2007년 11월 15일~2008년 1월 24일)까지 주 1회 총 12회 진행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제과제빵 실습실 내에 동아리방에서 이루어졌다.

#### 다.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은 2004년부터 다양한 독서치료 그룹을 리더한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가 맡았으

51) 상계논문, pp.24-25.

며, 보조자로 관련 강좌를 듣고 있던 학부생 1명이 4회차(12월 6일)부터 함께 참석하여, 보조업무와 치유적 말하기를 기록하였다.

#### 라. 매체 적용

매체는 계획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사실 독서능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지만, 참여도를 보았을 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독서문제아<sup>52)</s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독서능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는 독서능력이 정신 연령에 비하여 낮고 지능도 낮은 '독서지체아'와 독서능력이 지능 수준에 맞추어 발달하지 않은 '독서부진아'도 있었고, 다른 경우에는 독서행동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독서무관심아는 없었으며, 대부분 독서태도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독서력은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독서하는 '독서편향아', 독서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대로 이것저것 읽는 '독서불안정아'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거리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습은 물론 독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수감생활 중에 체육활동이나 오락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독서환경이 마련된다는 정도로도 다행이었다.<sup>53)</sup>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소년원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고, 독서능력이나 관심 정도도 알게 되면서 계획에 따른 매체를 적용하기는 무리였다. 따라서 현재 소년원에서 유행중인 책을 읽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계획된 동일한 책을 10권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최대한 계획된 책을 확보하되, 관련주제의 책들도 활용하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쉽게 쓰여진 책이나 동화, 그림책, 시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그림책이나 시는 책을 미리 읽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날 함께 공유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 참여에는 무리가 없었다.

함께 공유한 시와 그림책은 다음과 같다. 가시나무(하덕규 시), 시집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오래된 미래, 2005),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열림원, 1998), 『처음처럼』(다산책방, 2006) 시집에 있는 시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고, 그림책으로는 '화'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해』(비룡소, 2003), 우울 상황에서는 『빨간나무』(폴빛, 2002) 등을 활용하였다.

52) 독서문제이란 도서에 대하여 부적응 현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독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동·학생을 말한다. 이러한 독서문제아는 읽기 자체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과 독서능력과 행동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어교육에서 읽기교육에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으로, 음독과 묵독의 문제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는 독서자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서, 독서능력에 원인이 있는 독서관련아와 독서에 대한 관심이나 독서의 방법, 태도 등 그 행동에 원인이 있는 독서이상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대구 : 태일사, 2001), pp.305-306).

53)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안전을 제일 우선시한다. 수용소에서 재소자에게 독서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매체 검열이 엄격한 편이다. 특히 영상매체의 경우는 그 내용이 직접적이며, 또한 설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독서치료 매체로 쓰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수용소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책' 중심의 매체를 활용하였다(Rhea Joyce Rubin,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Phoenix : Oryx Press, 1978), pp.63-64).

마. 프로그램 활동

독서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이 책을 읽고 토론이나 다른 활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픽션 자료를 사용할 때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대체로 창조적 글쓰기, 예술활동이나 토론, 역할극 등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54)</sup>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활동은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 활동<sup>55)</sup>을 하였으며, 때에 따라 그림그리기, 역할극, 규칙정하기, 특강도 병행하였다.

주어진 책을 치유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참여자들은 최소 책을 세 번 정도 읽는 효과를 가진다. 처음 책을 읽을 때와 이를 글로 옮길 때, 또한 함께 읽은 참여자들과 인도자와 토론을 함으로써 또 다시 읽는 경험을 한다. 특히 세 번째 말하기(토론) 과정에서는 참여자들마다 각기 다른 경험 속에서 읽고 말하기 때문에 한 책을 참여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참여자들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sup>56)</sup>

그림그리기는 3회기에 주어진 매체 중 『마음속의 그림책』에 제시되었던 물고기가족화, 나무그림, 가족에 대한 상징표현 등을 하였고, 다른 회기에서도 내용에 따라 활동에서 인상에 남는 장면

54) John T. Pardeck,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Guide to Bibliotherapy*(New York : The Haworth Press, inc., 1998), pp.19-21.

55) 참여자들에게 미리 프로그램 계획서를 나누어줄 때, 다음과 같이 책을 읽고 활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1) 먼저, 치유적 책읽기(혼자서 한다)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2) 다음으로, 치유적 글쓰기(혼자서 한다)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다.
- 위의 내용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도 무방하다.
-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두거나 메모를 대신 해도 좋다.
- 글은 메모 형식 또는 문장으로 솔직하게 적는다.

(3) 마지막으로, 치유적 말하기(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

- 준비해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 다른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이야기한다.

56) 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p.79.

그리거나 화가 났을 때 모습 그리기, 인생곡선그리기, 관계그래프와 상실그래프 그리기 등을 하였다. 규칙정하기는 프로그램 초반에 이루어졌다. 소년원생 스스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욕하지 않는다. 2) 떠들지 않는다. 3) 책을 꼭 읽는다. 4)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역할극은 '화' 상황에서 수감생활 중 같은 수감자에게 느끼는 화에 대해서 토로하였다. 이 중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이, 평소 생활하면서 다른 학생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이것을 즉석 역할극을 통해 해소해 보려하였다. 그러나 준비의 부족으로 역할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10회기(2008년 1월 24일)에는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상황으로, 계획에는 없었지만 특강을 배정하였다. 대체로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보충하거나 직업훈련원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주로 하였다.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재 제과제빵 자격증 공부에서 열외되어 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었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연구자 주변에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치료사과정을 이수하여 독서치료사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무학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고교까지 자격을 갖춘 경험이 있는 이에게 부탁하여 하루 특강을 부탁하였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검정고시 공부하고, 현재까지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이야기, 독서치료를 접하게 된 계기와 이후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미술치료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 바. 프로그램 평가

먼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저는 우연히 선생님을 통해 독서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치료를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참을성을 다시 갖게 되었다.(김진우)

무언가를 할 때 쉬운 것이라도 생각해보면서 하게 되었고 집중력도 성격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박용하)

독서치료를 하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전주영)

나는 직업으로는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보아서 유격병으로 하여서 군대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임희섭)

착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00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00이가 되겠습니다.(김하늘)

나는 독서치료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나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다. 아무튼 독서치료를 하면서 참을성, 인내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할 뿐이다. 나는 독서치료를 하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많이 났다. 독서 치료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이지운)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인상 깊은 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구성애의 『빨간 책』 - 그 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최수중)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다.(김진영)

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2. 『새장 안에서 새들은 노래한다』(한영록)

『미안하다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 토막살인을 읽으며 너무 무서웠다.(김우진)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 은석이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전주영)

『불량소년의 꿈』,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임희섭)

1. 『아직도 가야할 길』 - 몰랐던 걸 많이 알았다. 2. 『빨간책』 - 몰랐던 성의 지식이 생겼다.

3. 『죽기 전에 해야 할 88가지』 -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서(김하늘)

『학대받는 아이들』 - 그냥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이지운)

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2. 『학대받는 아이들』(박용하)

아이들이 좋다고 꼽은 책으로 으뜸인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이다. 이 책과 아울러 이를 다룬 '추적 60분- 명문대생, 그는 왜 부모를 살해했나?'의 영상<sup>57)</sup>도 함께 보았다. 그 때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었는지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을 살해할 수 있나요'라는 반응에서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은석이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묻기도 하며 프로그램 내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주영과 이지운의 관심이 높았다. 이들은 아마도 무서운 아버지 아래서 많은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듯하였다. 또한 『학대받는 아이들』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듯하여 공감을 많이 하였다. 구성애의 『빨간책』은 성에 한창 관심을 가진 10대들로서 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던 자신들의 성에 관한 왜곡된 시각과 잘못 이해했던 성지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외 『죽기 전에 해야 할 88가지』, 『불량소년의 꿈』,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새장 안에서도 새들은 노래한다』, 『아직도 가야할 길』 등은 소수가 읽었지만,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내용에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직업생활, 퇴소이후의 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데 다소 도움을 준 듯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움받은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최수중은 “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글 쓰며 되새기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함으로써 그런 습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기술하였고, 한영록은 “책읽기와 다음은 말하기에서”, 전주영과 김하늘은 말하기에서, 이지운과 박용하는 책읽기에서 각각 도움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김하늘, 박용하만 답변했는데, 모두 다 책읽기라고 응답하였다.

‘이 강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전주영은 “그럭저럭”이라고 하였고, 한영록은 “처음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임희섭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목표”, 박용하는 “집중력”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강좌에서 보완할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최수중, 전주영은 “기간이 짧았다”고 하였고, 임희섭은 “아직도 자신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김하늘은 “편안함이 있으면 아이들도 제 속에 있는 말들을 해 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느낀 소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서술적 평가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이들이 평가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중간중간 보인 반응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잘 하든 못하든 이 기간만큼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57) 영상자료를 볼 때는 제과제빵반 담당교사가 함께 동석하였다. 영상 기기를 작동하는 데도 필요하기도 하였거니와 영상자료의 검열 차원이라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정보도 알게 되었고,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책 속의 인물을 통해서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통찰도 할 수 있었으며, 역할 모델이 될만한 인물도 만났다. 자신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 외부세계와의 통로로서 책은 물론 이 프로그램의 신선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사이사이 개인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는데, 참여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독서에 임하는 태도 또한 아주 좋아졌으며, 늘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참여하지 않는 소년들이 부러워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소년원내에서도 어느 정도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평가 및 논의

교정기관의 하나인 소년원에서 소년들은 교정과 교화에 앞서 수용소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 소년원생간 혹은 직원과의 관계, 엄격한 수용소 관리 시스템 내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David Wineman(1969)은 수용소 내의 긴장의 완화제로서, 외부세계와의 통로로서, 레크레이션으로서, 또한 그들이 사회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독서치료는 더욱 필요하다<sup>58)</sup>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자가 적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나 제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소년원생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3개월에 걸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로서 관찰에 따라 애초 세웠던 프로그램의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 되었으며, 또한 장애요인들은 무엇이며, 이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프로그램 진행시 장애요인의 하나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기간 완전히 몰입하여 집중할 수 없었다. 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소년원 생활이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많았다. P소년원은 직업훈련원으로 정규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직업훈련이 목표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집중하는 것은 관련 전문 자격증 공부이며, 그 외에 아이들 개인 사정에 따라 검정고시, 한자능력, 컴퓨터능력 등 각종 능력시험들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단체 활동으로 종교집회나 오락회 등의 프로그램이 미리 짜여져 있어서,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바빴다. 왜냐

58) David Wineman, "The effects of Institution on the Pers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n*, Vol.63 (Sept. 1969), pp.1087-1088.

하면 소년원의 퇴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상벌 점수에 따른 도달 점수로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퇴소할 수 있는 일정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점수와 원생활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소년원의 규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이 배치되는 부분이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의 심성훈련의 정규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때,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정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 2) 프로그램 진행시 장애요인의 하나로서 소년원생들의 낮은 독서능력을 꼽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행과 낮은 독서력 혹은 학습력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이미 학교를 중도탈락하며, 일찌감치 학습에서 멀어졌으며 또한 독서의 경험도 일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몸은 청소년으로 자랐지만, 독서능력은 지체되어 자기 수준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그들의 독서수준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독서수준에 부합되는 독서자료의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소년원생들을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이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취미, 직업 선호도, 책의 장르, 영화 선호도 등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다면<sup>59)</sup> 그들의 취지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독서자료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개입이 어려웠다. 이들은 동료들에게 알잡혀 보이고 싶지 않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룹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인 프로그램의 병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문제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자질을 갖춘 사서 혹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 4) 연구자 개인 신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니, 매체 준비부터 진행, 사후 관리까지 준비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소년원과 도서관계와의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교정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Perrine(1995)은 교정기관에서 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에서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독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 카운티와 지역 도서관들의 기술과 장비 파트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문과 자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만남에 더하여, 도서관은 교정기관의 모든 그룹과 교정 활동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훈련, 사회, 교육과 정신보

59) 1950년대 뉴욕 소년원에서 12명의 16살의 비행 청소년과의 성공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제이콥(Jacobs)은 독서와 멀어졌던 많은 소년들이 행동 패턴의 개선과 더불어 책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제이콥은 소년원생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목록 리스트를 만들면서 그들의 취미, 직업선호도, 즐겼던 영화 장르 등은 물론 관련 전문가(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다른 전문가들) 이 제공하는 그들에 관한 정보들을 참고하였다고 한다(Eleanor Frances Brown, *op. cit.*, pp.171-172).

한 프로그램과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고 통합함으로써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와 모든 교정기관과의 이러한 협력과 통합은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실행하는 독서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sup>60)</sup>고 피력하였다.

한편, 소년원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원생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야 한다.
- 2) 소년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프로그램 시간을 일정하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원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교정교육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정규 교과 시간으로 할당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도직 공무원들이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선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도직 공무원 대상 독서치료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sup>61)</sup> 이외에 좀더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개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소년원 자체 직원 혹은 사서 또는 좀더 많은 수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의 과제이다.
- 4)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치유(self help or self healing)가 되기 위해서는 소년원내 독서(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세 요소인 매체, 진행자, 참여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소년원도서관’의 활성화와 설치가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협력 서비스<sup>62)</sup>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5)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의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년원생을 위한 전

60) Charles J. Perrine, "A Correctional Institution's Library Service," *Wilson Library Bulletin*, Vol.30(Nov. 1995), pp.249-252.

61) 무디(Moody)의 연구에 의하면, "그룹 테라피는 교정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진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개인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상담직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그룹 읽기치료(group reading therapy)를 위한 가치있는 보조기관의 하나로 여겨진다. 도서관의 이 서비스는 세 가지 목적, 즉 레크레이션, 지식 자원의 제공과 통찰력을 얻는 수단을 제공한다."(Mildred T. Moody, "Modern Concepts in General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s," In: *Library Trends, issue on Bibliotherapy*. Ruth M. Tews, issue editor, Vol.11(Oct. 1962), pp.151-152).

62)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에서는 교정기관과 협력 업무의 하나로 비행 청소년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1980년대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을 한 예는 드물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 이후 P소년원에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협력 서비스의 하나로 서비스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김수경(2008), 전개발표자료 참조.

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선 소년원생들의 독서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독서능력 진단도구의 준비, 소년원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른 수준별 독서목록 개발, 소년원생의 특수한 경험과 처지에 맞는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 6) 법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의 소년원과 지역의 도서관(공공, 대학, 학교)간의 협약을 통해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 7)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도서관이 원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에게 읽을거리로서 독서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1790년, 미국에서이다. 그후 1842년 이후에는 상당한 양의 도서를 구비한 장서가 교도소에 설치되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종교서적과 도덕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문직사서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명실상부한 도서관을 만든 것은 20세기 초 이후였다. 점차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화교육을 지원하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교정기관에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UN을 위시한 국제기구 및 도서관 관련 전문직 단체 등이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게 되었다.<sup>63)</sup>

P소년원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몇 달 후 이 도서실이 다른 공간으로 전용되면서 폐지되고, 도서실에 있던 도서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하던 제과제빵 모임방으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일반교실로 이동되어 소년원내의 선생님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장기적, 지속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의 교정교육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소년원생들의 정보 및 교육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년원내에 환경적·인적 요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소년원도서관<sup>64)</sup>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63) 홍명자, 전계논문, p.58. 교정기관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담은 참고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Library Standards for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Chicago :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9). ; Frances E. Kaiser ed.,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IFLA Headquarters, 1995). ; ALA, *Library Standards for Adult Correctional Institutions*(1992). ; LA, *Guidelines for Prison Libraries*, 2nd ed.(1997).

64) 소년원도서관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가 유일하다. 정명화, 소년원도서관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소년원도서관 현황을 조사하고, 직원과 소년원생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소년원도서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더불어 소년원도서관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소년원도서관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소년원도서관은 소년들에게 입원 기간 동안 지적 자유의 감사함을 느끼고, 학습과 정서함양을 위해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소년원도서관의 시설, 직원, 자료, 봉사를 정비하여 일반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봉사에 준하는 양질의 도서관 봉사를 보호소년에게 제공한다면 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년원도서관의 적극적 활용은 소년원생과 그 가족이 소년원을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정명화, 전계논문, p.viii).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상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소년원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P소년원 학교장 앞으로 협조공문 제출
- 2) 협조 요청이 수락된 이후 담당자와 사전 약속에 따라 P소년원 방문
- 3) 프로그램 대상자 사전 면담
- 4) 프로그램 개발
- 5)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 6)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 인근 공공도서관에 협조 요청
- 7)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이후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P소년원에 적용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 선발 2) 시기 및 장소 3) 진행자 4) 독서치료 활동 5) 평가로 마무리하였다.

연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관찰하였던 연구자로서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을 제안한다.

- 1)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2) 소년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프로그램 시간을 일정하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3)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개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 4)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자가치유(self help or self healing)가 되기 위해서는 소년원내 독서(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소년원생을 위한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6) 법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의 소년원과 지역의 도서관(공공, 대학,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 지원 서비스가 요청된다.
- 7) 궁극적으로 소년원 도서관이 원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2. 제언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으로서 도서관에서 협력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궁극적으로 교정기관 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그들의 지식·정보·오락의 욕구를 항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소년원, 분류심사원, 대안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서목록 서비스, 순회문고 혹은 이동도서관,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비행 청소년들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은 단지 부적절한 환경, 불행한 가정생활, 실패한 학교생활 혹은 다른 부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탈선하였지만, 그들도 엄연히 인간으로, 이해를 가진 수감자들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그렇게 형성되었을 뿐 범죄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보다 더 좋은 태생적 환경, 그들을 둘러싼 환경, 더 구조적인 연계에 의해 그들을 관리해야 한다. 수감자들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일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특히 친구들과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이해를 가진 직원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면 도서관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귀는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대우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새롭게 풀려난 수감자들은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건설적인 시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자가 될 것이다.<sup>65)</sup>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우선 떠올린다. 그러나 매년 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통계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며, 따라서 사회적 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도서관은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조차도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미약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도서관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에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층이라 할 수 있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정교육 및 교정복지, 청소년복지, 교육학, 법학 등에서 일부 관심을 가지고 교정복지사업, 법률적 보호와 처분이나 인성교육, 도덕교육 대상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즉 어떻게 이들을 잘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교정활동의 하나로 적용하고자 할 때는 독서치료의 원리에 입각하여 스스로 치료의 주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삶의 주체자로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제공한 청소년 문제의 대가인 도널드 위니콧은 비행

65) Eleanor Frances Brown, *op. cit.*, p.165.

이 박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 박탈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아야 했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의 결여라고 한다. 그의 '반사회적 경향성'(1965)라는 논문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기원을 유아기와 어린 아동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고, 청소년 비행을 오히려 '희망'의 징조로 보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은 그들이 박탈된 사랑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외현되었다고 한다. 즉 위니 컷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인생 초기의 결핍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러한 위니 컷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를 반증하는 연구들이 많다.

무엇보다 범죄성이란 대체로 어린 시절에 획득된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산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성인 재소자들의 인격 변화는 어려워도 소년들의 비행은 교정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범죄(crime)로 여기기보다는 재활(rehabilitation)과 교화(enlightenment)로는 보는 견해가 현대적 소년사법에 시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니 컷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 안에 그런 행동을 보듬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sup>66)</sup> 즉 이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배제와 처벌의 원리보다는 이들이 그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외부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결핍과 박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인적인 원조 혹은 사회적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거나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로서 본인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 스스로 놀랐으며, 또한 그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자료들이 발굴되었고, 성인 범죄자 혹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의 처우로서 인적, 사회적 시스템적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들도 모색하게 되었다.<sup>67)</sup> 소년원생들에게는 퇴소후 사후조치로서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문제 인자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적인 원조 또한 필요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청소년 내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책임있는 어른들의 사회적 시각부터 교정되어야함을 절실히 느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서도 2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 혹은 보호자 교육이 명령된다. 범죄를 가장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 아래서 양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의 또 다른 대상은 그들 부모들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의 교사, 일반 학부모, 사회복지사, 교도관 등으로 확대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확장할 수 있다.

이들 청소년 비행을 사회 안에서 보듬어줄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서 혹은 독서치료 진행자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인물, 즉 '중요한 타인들'<sup>68)</sup>의

66) D. W. Winnicott, *Deprivation and Delinquency*, 도널드 위니컷 저, 박탈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이재훈, 박경애, 고승자 역(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pp.17-18.

67)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주제이므로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68) '중요한 타인들'이란 청소년에게 중요하고 또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의미 있는 타인들의 청소년의 감각이나 무력감, 그리고 가치의 증가나 감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환경

의견을 받아들여 자아의 일부로 하기 쉽다. 따라서 부모나 동료, 선생님들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타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부모들은 생업에 바쁘고, 동료들 또한 경제적 입시 제도하의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타인'을 대신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독서이다. 청소년들은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각을 수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중요한 타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성장에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sup>69)</sup>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매개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간섭과 침해가 아닌 관심과 사랑이다. 이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수많은 책 속의 등장인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우선 사서들이 해야 한다. 독서치료가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교정에 개입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개발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 친구들이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69) 김수경,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교사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286.



### 〈부록〉 독서상황질문지

이름 : \_\_\_\_\_ (나이 : \_\_\_\_\_)

1. 책읽기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2. 만약 책읽기를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해당사항 없으면 3번 질문으로 넘어가기)
3.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은?  
① 없다    ② 30분 정도    ③ 30분~1시간    ④ 1시간~2시간    ⑤ 2시간 이상
4.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① 없다    ② 1권    ③ 2권    ④ 3권    ⑤ 4권 이상
5. 주로 읽는 책은 ?  
① 만화책    ② 소설    ③ 에세이    ④ 시집    ⑤ 판타지나 추리소설  
⑥ 기타 \_\_\_\_\_
6. 자신의 독서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만화책 외에는 읽기 힘들다.  
② 소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③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종류 ( \_\_\_\_\_ )만 읽는다.  
④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웬만큼 읽을 수 있다.
7.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감동 받았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책이름 : \_\_\_\_\_ 지은이 : \_\_\_\_\_  
이 유 : \_\_\_\_\_
8. 친구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은?  
책이름 : \_\_\_\_\_ 지은이 : \_\_\_\_\_  
이 유 : \_\_\_\_\_

9.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10. 아래에 제시된 주제 중에 읽고보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음가는 대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부모/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가난 <input type="checkbox"/> 자아정체성/자존감 <input type="checkbox"/> 자기계발 <input type="checkbox"/> 진로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수줍음/불안 <input type="checkbox"/> 강박증 <input type="checkbox"/> 자살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input type="checkbox"/> 학업부진 <input type="checkbox"/> 성적/시험/입시 <input type="checkbox"/> 학교부적응 <input type="checkbox"/> 교사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친구관계 <input type="checkbox"/> 왕따/은따/집단따돌림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폭력 <input type="checkbox"/> 불량 서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성피해 <input type="checkbox"/> 사이버중독
--	---

11. 지금 현재 자신의 가진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

- ①
- ②
- ③

12. 자신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 중에서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3. 자신이 이미 한 것 중에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4. 가족사항을 적어주십시오.

15. 취미는 무엇입니까?

16. 종교는 무엇입니까?

17. 독서모임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